

Cover Story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콘퍼런스서 본
기업 파트너십 혁신 현장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 흐름이 확 바뀌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최혜정(54) 마케팅 본부장의 말이다. 그녀는 지난 6월 중순 영국 런던의 ‘글로벌 기업 파트너십 콘퍼런스(GCPC·Global Corporate Partnership Conference)’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매년 열리는 이 콘퍼런스는 30개 회원국이 모여 최근 기업과 NGO가 어떻게 협업하는지 모델 사례를 공유하는, 세이브더칠드런 내부의 학습장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개 사업장, 159개 이상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97년 역사의 NGO다. 기업들의 후원금만 1700억원(2014년)으로, 영국 내에서 모금액 기준 2위 단체다. 이 때문에 이 콘퍼런스는 글로벌 기업 사회공헌의 흐름, 세계 각국의 이슈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현장이다. 재작년에는 유니레버 부사장이 ‘공급망(value chain) 측면에서 원료 공급부터 생산, 판매 소비 전 과정에서 어떻게 CSR 활동이 전개되는지’를 발표했다고 한다.

NGO가 여는 콘퍼런스에 글로벌 기업 부사장이 직접 나와 사례 발표를 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글로벌 NGO에선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6조원의 사회공헌 비용을 쓰고도, NGO로부터 “갑질하는 기업” “NGO가 사회공헌 하도급 업체냐”라며 비판받는 한국 기업의 ‘파트너십 문화’에 주는 시사점은 없을까(2014년 전 경련 사회공헌백서 기준, 주요 기업은 2조8000억원, 기업재단은 3조2000억원을 사회공헌으로 썼다).

지난 2일 최혜정 본부장을 만났다. 이어 리타 지로티(Rita Girotti) 세이브더칠드런의 글로벌기업파트너십 그룹(GCPG·Global Corporate Partnership Group) 대표를 이메일 인터뷰했다. 이들을 통해 글로벌 기업 파트너십 혁신 현장을 엿볼 수 있었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최) “‘가치 공유 파트너십(Shared Value Partnership)’이었다. 예전에는 기업이 사회공헌 분야를 정한 후 파트너 NGO를 찾거나, 아니면 NGO가 기업을 찾아가 사업을 제안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기업과 NGO가 아예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처음부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사례가 무척 늘었다. 기업의 가치와 NGO가 추구하는 가치 중 공통된 가치를 찾아서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다.”

— 가치 공유 파트너십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리타) “전통적인 사회공헌보다 한발 더 나간 형태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사업장을 방문해 자원봉사도 하고, 기업 임직원 기금 모금도 했다.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들을 세이브더칠드런 사업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업과 NGO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 (유통) 물류나 IT 지원 등 각각의 전문성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 전통적인 기부가 아닌, 비즈니스 방식이다. 그 이유는 빈곤, 교육, 건강 등 엄청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 문제는 기업이나 정부, NGO가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기업에도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NGO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로 다른 집단이다. 가치(Value)를 공유한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최) “가령 A라는 기업이 자신들의 가치를 ‘중·고생용 과학서적 출판전문업체’라고 규정하면, 이 회사의 목표는 과학책을 최대한 많이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중·고생의 과학적 마인드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라고 가치를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

D2면에 계속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
송선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제1회 아시아 CSR 랭킹 조사

1위 기업 LG전자, 사회적책임 지수 가장 높은 한국 기업에 선정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수가 높은 한국 기업은 어디일까. ‘제1회 아시아 CSR 랭킹’ 조사에서 한국 기업 중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 SDI가 차지했고, 포스코와 기아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CSR 랭킹’은 아시아 각국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타 아시아 국가에 자회사를 1개 이상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세 영역의 139개 지표를 활용했다. 이번 조사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IGI(Inno Global Institute) 등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5개국의 대학 및 언론사로 구성된 ‘아시아 CSR 랭킹위원회’가 진행한 것으로, 지난 1년간 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홈페이지,

이, 뉴스 등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LG전자는 환경(79.2점)과 사회(81.8점), 지배구조(69.6점)에서 총점 76.9점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91.3점), 소비자 보호(87.5점), CSR커뮤니케이션(92.3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삼성전자는 총점 75.8점으로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90점), CSR커뮤니케이션(92.3점) 영역에선 점수가 높았지만 CSR 의사결정(57.1점), 노동 관행(67.8점)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 3위인 삼성SDI(총점 72.9점)는 지배구조 영역 총점이 81.2점으로 나타나 평가 대상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포스코는 환경 경영과 CSR 의사결정에서, 기아자동차는 오염 예방과 CSR커뮤니케이션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 밖에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SK C&C가 근소한 차이로 나란히 6~8위에 이름을 올렸고, KT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9위를 기록했다.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IGI, 국회CSR정책연구포럼(대표 홍일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아시아 CSR 랭킹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시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CSR 랭킹 발표 및 시상식이 열렸고, 영역별 우수 기업의 글로벌 CSR 모델 사례 공유도 이어졌다. 홍일표 의원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랭킹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원칙과 전략을 새겨두기 위한 대화와 경쟁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D8면에 계속

정유진 더나은미래 기자



조혜원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 1일 개최된 ‘제1회 아시아 CSR 랭킹 컨퍼런스’에서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총점 및 영역별 우수기업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윤 한국타이어 CSR팀 팀장, 김현철 LG디스플레이 CSR팀 팀장, 이재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IGI대표, 허인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대표, 전명우 LG전자 경영지원부 홍보FD 전무, 홍일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이선주 KT CSV센터장, 김승진 기아차 경영전략실장, 이진영 SK C&C SKMS실 지속경영팀 과장, 신미주 삼성전자 글로벌법률팀 차장.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그 후…

놀이터를 빼앗긴 아이들

검사 기준 미달된 2064개 놀이터 임시 폐쇄
2008년 법 제정 후 7년 동안 보수 대책 없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권보람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설치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를 완전히 철거한 광주 C아파트(위)와 6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인천 A아파트의 놀이터.

“저기선 못 놀아요. 친구들이랑 PC방 가져나 집에서 노는 거죠.”

지난 2일 인천의 A아파트 근처에서 만난 김우영(가명·10)군은 놀이터를 에둘러 주차 공간 쪽으로 걸었다. 놀이터 입구는 형광색 사슬로 묶여 있고, 녹슨 그네는 아예 안장이 위에 걸려 있었다. 놀이터 구석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났다. 김군이 사는 A아파트 놀이터 4곳은 지난 1월 한꺼번에 임시 폐쇄됐다. 벌써 여섯 달째 이대로 방치돼 있다.

A아파트 놀이터가 폐쇄된 이유는 지난 1월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때문이다. 설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놀이터 2064곳이 일시에 폐쇄됐다. 불합격된 놀이터는 개보수한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7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정부·지자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모두 손 놓고 있다가 놀이터 폐쇄에 대한 후속 대책 없이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을 하루아침에 빼앗아버렸다고 주장한다.

◇임시 폐쇄 그 후… 좁아지고, 방치되고, 사라진 놀이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898개의 놀이터가 이용 금지 상태다. 놀이터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 시설은 지자체가, 민간 시설은 놀이터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예산이 없는 지자체나 영세·소형 공공주택의 민간 놀이터는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보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A아파트의 경우 폐쇄된 놀이터 4곳의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의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입주자가 공용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은 5000만원뿐이다. 단지 내 도로 포장, 주차장 보수 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모두 놀이터에만 쓸 수도 없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놀이터가 반년째 방치되다 보니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급한대로 놀이터 2곳만 보수하고 나머지 2곳은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대구 북구에 있는 600여가구 규모의 B아파트 역시 시설 노후로 7개 중 3개 놀이터를 임시 폐쇄했다. 놀이터 한 곳당 공사 비용은 약 3000만~4000만원이다. 계획에 없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려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은 난색을 표한다.

“주민회의를 해보니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이참에 그네며 미끄럼틀을 다 뽑아버리자’는 의견이 많았죠. 대표회의와 몇몇 주민이 ‘그래도 애들 노는 공간을 그렇게 쉽게 없애면 안 된다’며 겨우 설득했습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는 “반대했던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자가 시공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놀이터가 한꺼번에 폐쇄돼 설치 비용이 많이 올랐다”면서 “놀이터를 임시 폐쇄하기 전에 기존 놀이터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돌려주세요’ 개정안 발의

놀이터들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을까. 이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설치 검사나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자 아동복지 전문 NGO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통해 모은 시민 서명 1581장을 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놀이터를 지키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아동 놀 권리 옹호 캠페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어린이 대표로 참석한 지효은(1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구원은 “낡은 놀이터를 고쳐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폐쇄 중인 대부분의 놀이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 주택의 놀이터”라며 “아이들이 놀이터 이용에서조차 차별받는 것을 막고, 안전한 놀이 시설에서 놀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계 놀이의 날인 지난 5월 28일부터 캠페인을 시작해 임시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운동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http://www.childfund.or.kr/main.do>)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권보람 더나은미래 기자

버려진 폐CD 모아모아… 85만 청주 시민 ‘꿈의 城’ 쌓다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쓸모 없어진 CD 활용, 시민들 꿈 적어
옛 담배공장 외벽 덮는 대형 프로젝트



비엔날레가 열리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전경. 2013년에는 폐기된 현수막과 천 조각을 모아 외벽을 꾸미는 ‘조각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어디 버려지는 폐CD 없나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초대형 공예 프로젝트인 스탠딩 피플 이미지정(41) 대표의 하루는 폐CD를 수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군데군데 첩이 벗겨지고 유리창이 깨진 청주의 옛 담배 공장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9월 16일~10월 25일)에서는 옛 담배 공장인 연초제조창의 외벽을 시민의 꿈을 적은 폐CD로 덮는 초대형 공예 프로젝트 ‘85만 청주의 꿈’이 진행된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은 1946년에 개설된 국내에서 가장 큰 담배 생산 부지다. 한때 청주 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2004년을 끝으로 잊혀졌다.

“옛 연초제조창과 폐CD는 우리의 과거와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이 존재들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면 어떻게 생각했죠.” 이 대표가 ‘85만 청주의 꿈’ 취지를 소개했다.

현재까지 수거된 폐CD는 총 25만장. 가로 180m, 세로 30m 규모의 옛 연초제조창 외벽을 덮기 위해선 최대 40만장이 필요하다. 서울·경기·부산·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폐CD를 수

거하고 있다. 국외에서의 참여도 활발하다. 일본·중국·미국·캐나다·러시아 등 9개국 24개 도시에서도 시민의 꿈이 적힌 폐CD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심밤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홍보팀장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폐CD를 매립·소각할 경우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폐CD를 모두 수거해 물통이나 경찰용 방패 등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라면서 “폐CD가 예술품으로,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옛 연초제조창 역시 비엔날레가 끝난 후 공예 전시 및 교육이 이뤄지는 공예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폐CD 수거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청주 지역 내에 설치된 폐CD 수거 박스를 활용하면 된다. 1000장 이상일 경우에는 비엔날레 조직위가 해당 단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수거해간다. 청주 외 시민의 경우 폐CD의 광택 없는 면에 자신의 꿈을 적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2동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미디어프로젝트팀 앞’으로 보내면 된다(폐CD가 1000장 이상일 경우 배송비 무료). 폐CD 수거는 7월 31일까지이며,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시민이 직접 폐CD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이 연초제조창 1층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민아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공익 뉴스 브리핑

‘2015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참여 기업 모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5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열리는 공모전은 최근 대두되는 공공기관(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참여 기업을 공공기관(공기업)으로 정했다.

참여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공모 주제 제안과 사업 홍보, 수상자 시상 등을 함께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7일(금)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로 참여 희망 공문을 보내면 된다.(E-mail, webmaster@crckorea.kr/Fax, 02-2077-3959) 문의 02-2077-2976

청소년 영화인재 육성 프로그램 ‘아트드림 영화제작소’ 2기 모집

현대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청소년 영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아트드림 영화제작소’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영화 제작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8월부터 6개월간 단편 영상 제작 워크숍과 30회의 인문·문화 교육, 영화 제작 교육이 이어지며 상영회도 개최한다. 교육이 끝난 후에

는 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해 후속 지원도 이루어진다.

모집 대상은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14~18세 청소년이며, 취약 계층 청소년을 우선 선발한다. 7월 25일(토)까지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홈페이지(arcon.or.kr)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문의 02-725-5529

자람가족학교·이지웰가족복지재단, 스스로 부모학교 2기 모집

자람가족학교와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이 함께 하는 ‘스스로 부모학교’가 2기를 모집한다.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율적인 부모 교육의 장이다.

5명 이상(최대 9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15개 팀은 8월 13일(목)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주간 활동한다. 각 팀의 팀장들은 매주 목요일 자람가족학교 강사들과 만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참여형 워크숍 ‘돈뽀 클래스’에 참여해야 한다. 이후 팀별로 돈뽀 클래스에서 다른 내용을 확장, 심화시키는 ‘나눔 클래스’ 과정이 이어진다. 팀별로 관련 교재와 한 주당 회의 운영비 5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1월에는 1~2기 참가자들이 전문가로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7월 20일(월)까지 자람가족학교 공식 카페(cafe.naver.com/parentsbench)를 통해 내면 된다. 문의 02-556-1202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된 개관 이벤트에는 500명 넘는 시민, 활동가, 예술가들이 함께했다.

서울혁신파크 제공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프라이탁(Freitag) 플래그십 스토어는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공간혁신 사례로 첫손에 꼽힌다.

정체성 없는 황무지 空間에서 공동체 가능성 깨울 共同으로…

舊 질병관리본부 부지, 111개 혁신단체 공간으로 대변신

서울 은평구 녹번동 10만9000㎡(약 3만3000평) 부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있던 곳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충북 청주시로 이전한 후, 이렇다 할 정체성 없이 대관이나 임대 등으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서울혁신파크'로 불린다. 사회 혁신을 꿈꾸는 NGO,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이 함께 모이는 거대한 실험실이다.

지난 5월부터 공간을 채울 단체를 공모, 약 361개의 단체, 1800여명이 몰렸다. 최종 111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두꺼비하우스, 에이컴퍼니, 터치포크, 대지를 위한 바느질, 동구발, 해피브릿지협동조합HBCC,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유명 사회적기업도 다수 참여했다. 입주 단체는 코워킹 공간을 이용하거나(1인당 월 3만원), 개별 사무실을 이용(1㎡당 1만3000원 내외)할 수 있다.

서울혁신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혁신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휴미장·목공·바느질 등을 활용한 워크숍을 열거나, 도시형 생태예술 캠프를 개최하는 프로젝트 그룹 '킵스(Keeps)'의 조유나(39) 대표는 "신진예술가를 위해 일하는 사회적기업 '에이컴퍼니'와는 예술가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고, 공간 공유 전문 사회적기업인 '페어스페이스'와는 색다른 공간을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3만평 부지, 32개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장점이다. 버려진 피아노를 수리해 기부하는 단체인 '달려라 피아노'는 이번 입주를 사업 확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정성준(44) 대표는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돼 폐피아노를 활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재활용품에 디자인을 더해 가치를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시장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성훈 서울혁신센터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갈구하는 사람들 1000명이 한데 모여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해보라"면서 "이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했다. 혁신파크는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크리에이티브랩, 마을종합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포함, 총 11개의 서울시 중간 지원 기관이 함께하며 시너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입주 단체들에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와이파이(마케터·전략컨설턴트·회계사·노무사·변호사·IT 개발자 등 구성된 지원 그룹)'도 합류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는 호텔, 문화 복합 시설, 놀이 공간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혁신파크에
NGO·사회적기업 등
111개 단체 선정 입주
1000명의 혁신가들
협업해 경험·가치 공유



조선일보 DB

동네가 떠도, 동네를 떠나는 사람 없어야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막막하더라고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 조입에서 디자인 회사 '소울스프(Soulsoup)'를 운영하던 방장혁 대표는 지난 4월 말 쫓겨듯 사무실을 옮겨야 했다. 2013년 3월, 지저분한 식품 창고였던 15평 공간에 손수 페인트칠과 바닥 공사를 하며 안착한 보금자리였다. 애착이 남달랐지만 버틸 도리가 없었다. "구경 끝날 무렵, 갑자기 건물주가 우리 공간에 직접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가 뜨면서 언젠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인근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이 점포는 임대 매물로 나와 있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20만원. 3개월 만에 임대료가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배로 났 것이다.

소위 '핫(hot)'한 동네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 바로 '젠트

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낙후된 도시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나 집값 등이 상승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홍대(서대문구), 가로수길(강남구), 삼정동길(중구), 경리단길(용산구) 등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다음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012년부터 사회혁신단체, 예술가 등이 동지를 트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역으로, 서울숲길 주택가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40여 곳의 소셜벤처·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들이 동네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도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 임차인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오는 11월로 임대 계약이 끝나는 공정무역기업 '더페어스토리' 입주한 대표는 "2014년 1월에 입주했을 때, 우리 위층의 임대료가 50만원이었는데, 최근 110만원으로 올랐더라"면서 "10월 말에 재계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가 입법예고한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지역 공동체의 상호 협력 증진,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약을 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료가 배 이상 상승하면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성동구가 입법예고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지자체가 직접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국내

취약 계층 교육·고용 한번에… 컨테이너 박스에 담은 꿈과 희망

서울 성동구 공터에 공익 문화예술 복합공간 들어선다

'도심 한복판에 100여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쌓고 취약 계층에 교육과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에 고객과의 접점을, 일반 시민에게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선사한다면?'

이런 상상이 현실로 이뤄졌다. 롯데면세점과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이하 아르콘)가 함께 만들어가는 '언더 스탠드 예비뉴(Under Stand Avenue)'를 통해서다. 프로젝트명인 '언더 스탠드 예비뉴'는 아래를 뜻하는 '언더(Under)'와 '세우다'라는 뜻 '스탠드(Stand)'의 합성어로, 낮은 자세로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는 공간을 의미한다. 컨테이너를 활용해 몰(mall)을 구성한 네덜란드의 'NDSM' 예술가 부두, 문화예술 콘텐츠로 새로운 공간을 만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도시 재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했다.

롯데면세점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아르콘이 총괄 운영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등지에서 지속 확대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말 서울 성동구의 유휴 부지가 변신을 준비 중이다.

네덜란드의 컨테이너 물
예술가 부두 벤치마킹해
사회적 기업·시민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과
교육·취업 기회 마련

이곳에서는 '유스 스탠드(Youth Stand)' '맘 스탠드(Mom stand)' '하트 스탠드(Heart Stand)'라 불리우는 사업이 진행된다. 그중 핵심 영역인 유스 스탠드는 스위스 비영리 단체 '잡팩토리' 프로그램을 한국형 모델로 개발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바리스타와 영상 디자인 등의 교육을 맡은 한양여대 산학협력단의 이경범 영상디자인과 교수는 "아 이들이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

럼(3개월 과정, 24회)을 구성했다"고 했다.

맘 스탠드(Mom stand)에선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간에 마련될 330㎡ 규모의 레스토랑·카페·쿠칭 스튜디오 등의 일자리로 연계해 자립을 도울 계획. 하트 스탠드(Heart Stand)는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간이다. 감정 서비스 노동자들부터 가족 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타악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미술 활동, 아빠와 함께하는 숲 속 체험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들도 이 공간에 참여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과 함께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소셜벤처 '마리몬더'와 '꽃피우다'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획상 형태로 참여를 확정했으며, 선배 창업가들이 모여 후배들의 협업과 연대를 돕는 단체 '언더독스'도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지 아르콘 사무총장은 "소의 계층이 한 공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도 얻으며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최태욱 더나은미래 기자

에선 처음 있는 시도. 조례의 골자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과 주민협의체 구성이다.

먼저 관할구역 안에 특정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구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해당되는 구역에선 '자율상생협약(건물주와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것)'의 체결을 유도하고,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업체 및 업소의 조정 등도 이뤄진다.

주민협의체는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주민 자치 조직이다. 건물주·임차인·거주자는 물론, 사회적 기업가·문화 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도 참여한다. 이는 미국 뉴욕시에 운영되는 '커뮤니티보드(Community Board)'의 개념을 차용한 것. 맨해튼·브루클린·퀸즈·브롱스·스테이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역에서 총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 문화를 만든 그들과 기존 주민이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의 실험이 전국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제동을 거는 단초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8월 초 조례위협의회의에 상정되며 9월부터 공포된다.

최태욱 더나은미래 기자

“원래 말썽쟁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인성교육 키워드 5가지는?

이달 21일부터 세계 최초의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매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 의무화의 첫 단추를 꿰기 전,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는 신외남 삼송초등학교 교장, 신원영 굿네이버스 나눔인성교육 선임연구원, 양혜진 서울신용산초등학교 교사, 전주은·조서영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강사(이상 ‘가나다’ 순) 등 학교 안팎의 교육 전문가 5인에게 인성 교육의 ‘키워드’를 물었다.



① 전문성

신외남

삼송초등학교 교장

신외남(54) 삼송초등학교 교장이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린 결론은 ‘문제아’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책임감과 배려심이 생길 거라는 것은 어른들의 착각”이라면서 “인성은 올바른 경험과 교육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학교 특성상 내부 인력은 교과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바코울루(핀란드의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늘 목이 맵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으로 이제는 아동권리 NGO 등 전문 단체가 개발한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로 도입할 기회가 많아졌죠. 학교 밖 인성 교육 전문가와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분명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② 실천

양혜진

신용산초등학교 교사

양혜진(32) 신용산초등학교 교사는 “도덕 시험 답안지가 아이의 인성을 말해주진 않는다”면서 인성 교육의 핵심을 ‘실천’으로 꼽았다.

“교과서로 인성을 배우면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더군요. 선생님인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실수가 생기면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청소년도 앞장서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양 교사는 또 학교에서 실시 중인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과정 중 아이들이 직접 행동지침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캠페인을 예로 들며



조수연 굿네이버스 사회개발사업부장은 “아동이 성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대 상황을 깨닫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인성교육 역시 우리 사회가 인성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성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존중

전주은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강사

“얼마 전, 인성스쿨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한 학급에서 한 아이가 담임선생님께 혼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래 문제를 잘 일으키는 아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육 과정에 참여했어요.”

전주은(47)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강사는 “존중이 없이는 인성 교육이 시작될 수 없다”면서 ‘교사 교육’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수업은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게 두지 마세요. 교사와 부모가 먼저 인성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아이를 마주할 수 있어야 올바른 인성 교육이 가능합니다.”



④ 협력

조서영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강사

“아이가 학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의 가정에서 아이의 태도를 바로잡아주길 기대하긴 힘들고, 선생님도 지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서영(35)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강사는 가정과 학교에서 채우기 어려운 인성 교육의 빈틈을 전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메울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1차 인성 교육은 물론 가정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와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며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전통 가정과 오늘날의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 역시 수업시수 등 현실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렇게 가정과 학교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은 외부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채울 수 있습니다.”



⑤ 효과

신원영

굿네이버스
선임연구원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 등 전 세계 36개국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협조하는 능력)’ 수준은 35위로 꼴찌를 겨우 면했다(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

신원영(35) 굿네이버스 나눔인성교육 선임연구원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성 교육은 아이들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학습 모델의 하나”라고 말했다.

“인성 교육은 개인의 도덕적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민을 키워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권보람 더 나은미래 기자



“외국인 친구도 다문화 친구도 5학년 1반 아이들과 똑같은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종호(12)학생은 “굿네이버스 인성스쿨을 통해 머리로는 알던 개념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존중하는 자세 가르치고 성숙한 시민을 양성해요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감히 흑인 주제에... 일론 벅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그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여긴 제 자리예요. 양보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 3일,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1반에 ‘로자 파크스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 사건은 1995년 미국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받고, 이에 불응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이날 강의는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강의 중 6회기인 지역사회 시민교육과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구성원을 대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자 이야기가 끝나자 교실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게 왜 재판을 받을 일이지?” “맞아! 너무해” 아이들이 작게 중얼거렸다. 조서영(35) 굿네이버스 나눔인성교육 강사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워크북의 ‘차별 경험 생각 나누기’ 활동 칸을 빠르게 채웠다. 이어진 발표에서도 아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백인이라고 해서 먼저 앉은 사람의 자리를 뺏을 순 없어요. 경찰이 로자를 체포한 건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구에는 우리와 피부색도 종교도 재능도 각각 다른 70억명의 사람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강사의 질문에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굿네이버스 인성스쿨은 ▲권리존중교육(개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I·II, 언어폭력 예방캠페인, 사이버폭력 예방캠페인(대인관계) ▲지역사회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나눔실천 캠페인(공동체) 등 총 8회기로 구성됐다. 굿네이버스는 올해 전국 40개교 6100여명의 학생에게 인성스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인성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바르게 성장한 시민이 공동체의 풍토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교육과정 중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의 이해 같은 사회 구성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보람 더 나은미래 기자

조선일보는 굿네이버스를 후원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니?

“사이버폭력예방에 함께 하는
당신이 바로 진정한 스타 STAR”

사이버폭력예방캠페인 경진대회에 참여하세요!

대회 일정	2015년 3월 ~ 10월
참여 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학교 학생 및 교사
시상 내역	교육부장관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굿네이버스 회장상 등
참여 문의	굿네이버스 나눔인성교육팀 02) 6717-4092 홈페이지 http://cyber.goodneighbors.kr

* 굿네이버스 사이버폭력예방캠페인 '스타(STAR)캠페인'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아동 스스로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가는 실천운동입니다.

스타캠페인

검색

주최

굿네이버스

후원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최고의 리더 되는 세가지 길로 여대생을 초대합니다



더나은미래·위민인이노베이션 주최 ‘여대생커리어페어’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자신이 있나요?”
사회자의 질문에 이십여 명의 여대생이 ‘네~’라며 화답했다. 옛되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다.
지난 4일 여의도 한국아이비엠(IBM) 본사에서 진행된 ‘소셜 아카데미’ 입학식 현장. 제1회 여대생 커리어페어의 사전 프로젝트인 이 행사는 여대생들의 밝고 명랑한 기운으로 넘쳐났다.

“우리는 부모가 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물심 양면 도울 겁니다. 평생 지켜보고 지지합니다.”
지난 4일 여의도 한국IBM 본사에서 열린 ‘2015 여대생 커리어페어 소셜프로젝트 아카데미’ 입학식 현장에서 설금희(새위민인이노베이션(Women INnovation, 이하 윈(WIN))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설금희 총장은 LG CNS 상무를 거친 대기업 1세대 여성 임원의 대표주자로, 퇴직 후 사단법인 ‘윈’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는 여대생들이 차세대 여성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기업 여성 임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윈’(이사장 손병욱)이 올해 처음 마련한 ‘2015 여대생 커리어페어’의 사전 프로젝트다. 6월부터 한 달간 전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디어를 공모, 7개팀 21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우연히 본 여대생 커리어페어 포스터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여대생이여, 세상을 바꿔라’라는 문구가 쓰여있었죠.”

입학식에서 만난 우정아(21·이화여대 사회학과 2년)씨의 말이다. 우씨는 “대학만 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진로도 막막하고 ‘유리천장’이나

전국서 선정된 7개팀 21명 여대생 대기업 女임원·20년차 IT 전문가에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법 전수받아

최종 우수 5개팀에는 800만원 상금 1000명 학생 위한 여성리더 강연 예정

‘경단녀(경력단절 여성을 일컫는 신조어)’ 같은 말들에 기가 죽었다”며 “어차피 나날 세상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바뀌고 싶었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우씨는 동기와 후배를 모아 ‘아리아리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여성 인력 간 네트워크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인을 위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리아리팀’을 포함, 저개발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 프로젝트를 내건 ‘E섬’ 팀, 된장녀·김치녀 등 여성 혐오적 차별 언어를 대체 언어로 순화해 캘리그래피로 표현하겠다는 ‘망치’ 팀 등 7개팀은 오는 9월까지 선배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멘토링을 위해 쟁쟁한 선배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백년만개’ 팀을



강창호 동국대 빅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수아 LG전자 차장



최주영 동화기업 부장

맡은 강창호 동국대 빅데이터연구소 대표(레인메이커포럼 대표)는 빅데이터 관리 전문가이며, ‘이수자’ 팀의 답임 멘토인 송기형(썬레보 대표)은 금융과 기업재무 분야에서 30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한다.

‘망치’ 팀을 맡은 박진숙 KTDS 팀장은 KT그룹 입사 20년차의 IT 전문가이며, ‘E섬’ 팀의 장혜영 전(前) 샘표식품 상무는 광고·마케팅 분야에서만 31년을 근무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정민아 엠켐케이피알컨설팅 상무, 김지현 삼성 SDI 차장(이상 아리아리팀), 최주영 동화기업 부장(장혜영팀), 이수아 LG전자 차장(एको포스트 팀) 등도 까마득한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 이들은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송기형 대표는 “젊었을 적에 먹고살기에만 급급했다면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 때”

라고 말했다. 최주영 부장은 “내가 학생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이들이 또다시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키우는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인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이어진 멘토링 시간. “유사한 사이트는 없나요?” “어떻게 여성 직장인들의 시간과 관심도를 끌어내겠다는 거죠?”

30여분간 이어진 멘토들의 질문과 지적에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여대생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했다. 대구에 사는 송현지(20·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1년)씨는 “지방에서는 이렇게 멘토링과 체계적인 강연을 함께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며 “새벽 6시 KTX를 타고 늦지 않게 온 보람이 있다”며 뿌듯해했다.

여대생 7개팀에 주어지는 혜택은 멘토링뿐만이 아니다. 6명의 전문 강사들로부터 총 15시간에 이르는 역량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입학식 당일 오후 열린 첫 수업에서는, 5시간에 걸쳐 프로젝트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이론 교육이 펼쳐졌다. 첫 주자로 나선 이주현 MCA 대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다양한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에게 ‘통찰력’을 당부했다.

① 이수아(가운데) LG전자 차장이 에코포스트팀원들을 멘토링 하는 모습

② 지난 4일 열린 ‘2015여대생커리어페어 소셜프로젝트 아카데미’ 입학식 현장. 설금희(둘째 줄 왼쪽 3번째) 사단법인 윈 사무총장과 허금주(둘째 줄 왼쪽 4번째) 교보생명 상무이사 등 멘토와 여대생 20여명이 참석했다.

③ 강창호(가운데) 동국대 빅데이터연구소·레인메이커포럼 대표가 백년만개팀을 멘토링 하는 모습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대상에 통찰력(In-sight), 즉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고 또 보세요.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김한범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 시니어 컨설턴트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수행 시간 계획부터 예산안 작성법까지 실무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7개팀 중 우수 5개팀에는 오는 9월 5일(토) 열린 ‘2015 여대생 커리어페어’에서 총 8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최고의 리더가 되는 세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성리더를 꿈꾸는 전국 여대생 1000명을 대상으로, 현직 여성 리더들을 초청해 자기계발 및 경력관리에 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60여명의 현직 기업 임직원 멘토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미에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논단

비영리조직 성장 위해서는 선명한 미션·핵심기술 있어야

비영리 조직 관련 콘퍼런스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이 있다. ‘작은 비영리 조직들이 처한 영세함’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짐 콜린스(Jim Collins)의 책 ‘Good to Great and the Social Sectors’ (비영리 분야를 위한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조직으로)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관심이 많은데, 앞의 질문은 위대한 조직을 향해 가기 전 먼저 좋은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과 관련해, 먼저 ‘조직의 죽음’과 관련해서 조직 이론에서 정리하는 명제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조직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갖는 경우 조직이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신생 조직이고, 둘째는 작은 조직인 경우다. 신생 조직은 안정화 시기까지 겪어 내야만 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데 조직 역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작은 조직 역시 자원과 시스템의 미약함으로 조직의 기본 역량이 낮아 생존의 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리와 비영리 구분 없이 같이 생기는 것으로, 자연 현상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의 생존 가능성, 특히 신생의 작은 조직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중요하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그간의 연구와 경험, 전문 서적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과제가 떠오른다. 첫째는 비영리 조직이 다른 비영리 조직들과 차별되는 선명한 미션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그런 미션에 다가서게 이끄는 조직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비영리 조직의 기본적인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먼저 차별적이고 선명한 미션을 지닐 때, 비영리 조직은 왜 그 조직이 존재해야만 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납득될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해서 사회의 인정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 수없이 많은 비영리 조직이 존재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 등에서 큰 차이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대동소이한 미션을 지닐 때 왜 그 조직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납득시킬 수는 없다.

다음으로 비영리 조직은 미션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아름다운 신념과 열정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미션의 실현을 가져오는 핵심 기술을 지닐 수 있을 때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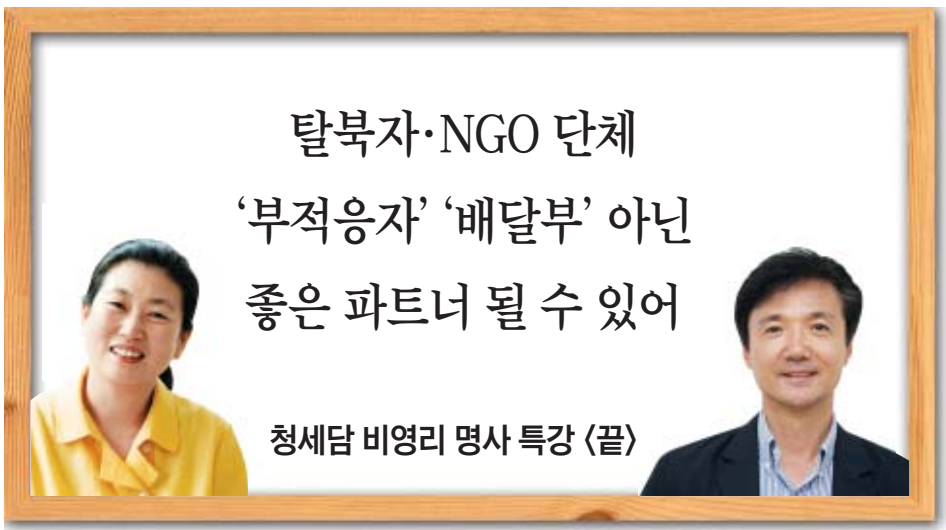
유익함을 위한 생존의 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갖춰질 수 있을 때, 좋은 조직의 기본 조건인 ‘성과’가 쌓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짐 콜린스가 위대한 비영리 조직 조건 중의 하나로 강조하는 ‘탁월한 성과 내기’와 ‘그러한 성과의 지속성’이란 아름다운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 견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대다수 비영리 조직은 짐 콜린스가 강조하는 위대한의 지점 이전 단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위대한 조직 이전에 좀 더 필수적인 과제는 바로 새로운 조직, 그리고 작은 조직이 갖는 한계를 넘어 좋은 조직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비영리 조직이 먼저 각자의 미션이 진정 차별적 선행함을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동시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핵심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역량까지도 체화해 보았으면 한다.

그런 필수적 과제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 비영리 조직들이 생존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위대함을 추구하기 이전에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 내야만 하는 절대적 과제이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권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해외부문 부회장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이 함께하는 소셜에디터(Social Editor) 양성 아카데미 ‘청년 세상을 담다’의 비영리 명사 특강이 지난달 16일 막을 내렸다. 대미를 장식한 주인공은 탈북자 청소년 대안 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4회)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권찬 부회장(5회). 이들은 특강을 통해 “올바른 비판은 올바른 이해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10여년간 탈북 청소년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조명숙 교감은 북한과 우리의 차이를 이해해야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할 줄 몰라요. 묻는 즉시 정치범으로 몰리니까요. 반면 수평적 관계에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상대를 비판해야 살아남거든요. 생김새나 언어 때문에 우리와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바로 탈북자입니다.”

조 교감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탈북자들이 ‘부적응자’ ‘문제아’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조 교감은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남한 시스템에 적응시키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적응을 넘어서 그들과의 조화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영리 명사 특강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국내 NGO의 특성과 현실’을 주제로 강연한 권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부문 부회장은 NG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부해 해도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지만 NGO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웃집의 간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전달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인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만 원을 기부하면 그 돈이 오롯이 전달되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단순히 후원금을 전달하는 ‘배달부’로 폄하하는 인식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는 돈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비영리인력을 전문가로 대할 줄 아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김미에 더나은미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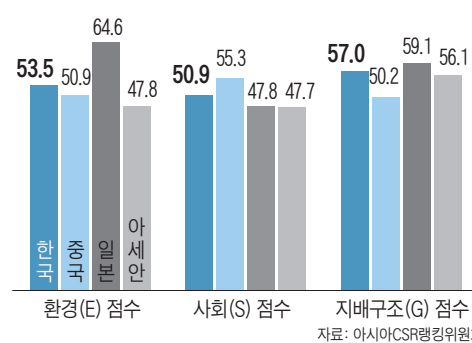
아시아 CSR 랭킹 분석

한국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두 2등... 中·일에 뒤처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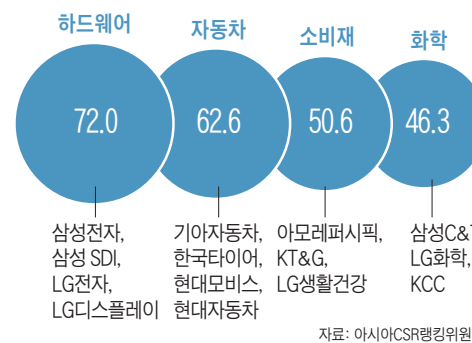
아시아 CSR 랭킹 한국 기업 순위

순위	기업명	산업군	점수
1	LG전자	하드웨어	76.9
2	삼성전자	하드웨어	75.8
3	삼성SDI	하드웨어	72.9
4	POSCO	철강	70.6
5	기아차	자동차	69.5
6	삼성물산	화학	65.1
7	LG디스플레이	하드웨어	62.4
8	SK C&C	기술 서비스	62.2
9	KT	전기통신	61.8
10	현대차	자동차	61.8
11	현대건설	엔지니어링·건설	61.5
12	한국타이어	자동차	60.1
13	SK하이닉스	반도체	59.8
14	현대모비스	자동차	59.1
15	삼성화재	보험	59.0
16	KT&G	소비재	58.7
17	코웨이	가정·사무용품	57.9
18	LG화학	화학	57.0
19	현대중공업	운송 장비	56.7
20	현대제철	철강	53.3
21	SK이노베이션	석유·가스·석탄	53.2
22	SK텔레콤	전기통신	52.4
23	삼성생명	보험	51.3
24	LG생활건강	소비재	47.9
25	아모레퍼시픽	소비재	45.3
26	네이버	미디어	26.4
27	고려아연	금속, 광업	22.6
28	이마트	소비재 판매	18.6
29	KCC	화학	16.7
30	현대글로비스	운송, 물류	16.3

아시아 CSR 점수 비교



한국 산업별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총점 평균 점수



‘아시아 CSR 랭킹’ 조사 결과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중국·일본에 비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E) 부문에선 일본 기업들의 평균이 64.6점으로 한국(53.5점)과 중국(50.9점) 기업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S) 영역에선 소비자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중국이 55.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50.9점)과 일본(47.8점), 아세안(47.7점)이 뒤를 이었다. 지배구조(G) 영역에서도 일본이 CSR 의사 결정과 이사회 구조의 다양성에 힘입어 1위(59.1점)에 올랐고 한국(57점), 아세안(56.1점), 중국(50.2점)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은 지난 1일,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와 IGI(Inno Global Institute),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이 개최한 ‘제1회 아시아 CSR 랭킹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국내 대표 산업 중에서 CSR을 가장 잘하는 산업군은 하드웨어 부문으로 나타났다. LG전자·삼성전자·삼성SDI·LG디스플레이가 속한 하드웨어 산업군의 총점이 7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한국타이어·현대모비스가 속한 자동차 산업이 62.6점으로 2위, 소비재(아모레퍼시픽·KT&G·LG생활건강)와 화학(삼성 C&T·LG화학·KCC) 산업이 각각 50.6점과 46.3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분야에서, 한국 기업 간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CSR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사됐다. 기업 내부에서 CSR 현황을 보고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주주와 고객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인색한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시가총액 30대 기업의 CSR 현황을 분석한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자사 CSR의 강점과 약점, 해외 사회가 본사의 방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각 기업의 E(환경)·S(사회)·G(지배구조) 항목별 분석 결과 향후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환경)’ ‘협력사 동반성장 등 대공급망 CSR(사회)’ ‘CSR 이사회 구조 및 다양성(지배구조)’으로 나타났다.

◇화두로 떠오른 환경 이슈… 한국 기업 간 편차 커
지난 4월 중국은 25년 만에 친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한 기업을 상대로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 소송, 기업 관계자 압류 및 구류, 정보 공개 요구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한 내용이다. 인도 역시 2010년 환경법 위반 사례를 바로 제소할 수 있는 녹색재판소를 출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기업을 압박하는 흐름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환경 이슈에 대비하는 정도가 ‘극과 극’으로 조사됐다. 이번 CSR 랭킹 분석 결과, 환경(E) 영역 1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 간 점수차는 무려 86.1점으로 가장 컸다. 종합 순위 4위에 오른 포스코는 일찍이 통합 환경경영 조직 체계를 구축해, 환경경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키워왔다. 이번 평가에서도 환경경영(90.9점) 점수가 오염 예방(77.8점),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70점), 기후변화와 생물

사회부문 1위 LG전자, 협력사 컨설팅 지원
KT는 ‘기가 인프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
한국타이어는 9개 소위원회서 활동 점점

다수 기업서 CSR 관련 부서 제각각

전반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제 갖춰야



기아차 그린 라이프 프로젝트(Green Life Project, 이하 GLP)에 참여한 글로벌 임직원 봉사단원들의 모습.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KT가 개발한 휴대용 소변 검사기 ‘요덕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LG전자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콜레라 고위험 지역인 에티오피아에 백신을 제공했다.

다양성(78.3점)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평가 대상 기업 중 ‘오염 예방(88.9점)’ 점수가 가장 높은 기아자동차(종합 순위 5위)는 지난해 친환경 경 전용차인 서울(Soul) EV를 출시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전기자, 수소연료전지차 등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있다.

◇기술 개발·협력 통해 사회문제 해결

종합 순위 1위인 LG전자는 사회(S)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4000여개에 달하는 1차 협력회사 중 연간 거래 금액이 상위 80%인 곳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과 CSR 교육을 진행하고, 자가 진단 결과가 취약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개선된 모습을 보인 협력 회사를 시상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 항목에서 전체 1위(78.4점)에 오른 삼성전자는 해외 현지 니즈(needs·필요)와 결합한 사회공헌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태국 소외 지역 초등학교에 IT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IT 기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 있다.

대공급망 CSR 항목에서 82.4점을 받아 LG전자와 함께 나란히 1위에 오른 KT(종합 점수 9위)는 협력사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협력)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다. KT는 백령도, 임자도, 대성동 등 도서 산간 지역 주민의 통신·의료·안전·문화·농업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기가 스토리’ 프로젝트를 KT텔레캅·KT뮤직·파워텔 등 그룹사가 가진 역량을 연계해 시너지를 더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핵심… CSR 운영 체계에 답이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CSR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한국 기업 조직의 특수성’을 꼽는다. 사회공헌팀, CSR팀, 동반성장팀, 환경경영팀, 법무팀 등 CSR 관련 부서가 분산돼있어, CSR 전반을 아우르는 의사 결정과 모니터링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 이윤석 Inno CSR 그룹 대표는 “부서별로 CSR 관련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기업이 많아 자사 CSR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면서 “기업 내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G) 부문 1위(81.2점)에 오른 삼성 SDI는 2003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최고 협의체인 ‘SM운영위원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CSR 이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지속가능경영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지배구조(G)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으로는 SK C&C와 한국타이어가 눈에 띄었다. SK C&C는 윤리경영실을 CEO 직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 및 해외 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경영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단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왔다. 한국타이어는 CEO가 참석하는 CSR전략위원회와 상품환경·에너지탄소·사회공헌·고객·협력사 등 9개 소위원회 CSR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위원회의 CSR활동 및 성과를 CEO에게 서면 보고하고, 매년 말엔 CEO와 함께 한 해의 CSR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이번 연구조사를 진행한 아시아CSR랭킹 위원회는 향후 평가 대상 기업을 확대해, CSR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정유진 더 나은미래 기자

제1회 아시아 CSR 랭킹 총평

이해 관계자 간 소통이 절실한 때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IGI 대표)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려면 CSR 보고서 발간에 앞서 먼저 자사 CSR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세 영역의 총점에서 한

국 기업들 간 점수 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CSR 커뮤니케이션’ 때문이었다. 이는 많은 기업이 아직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상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세 영역에서 중국·일본에 이어 전부 2등에 그쳤다. 개별 기업들이 CSR 활동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석 Inno CSR그룹 대표



살펴보면 기업들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깨닫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친환경 정책 및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공헌에 집중돼 있는 기존 한국 기업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 노사 문제, 공정 거래, 협력사 동반 성장을 비롯해 환경과 기업 지배구조 부분까지 거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CSR 의사결정체(위원회 등)를 재정비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해 사회의 니즈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야말로 향후 한국 CSR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